

## 독일 무슬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논의

최대회\*

### <국문요약>

독일의 이주여성 폭력을 둘러싼 논의에서 ‘서구 대 이슬람’, ‘민주주의 대 전(前)민주주의’, ‘인권 대 폭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담론적 할당이 수행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방적 할당이 허용될 수 없으며 독일에 거주하는 토착 독일여성과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의 현실에 적합한 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독일 이주여성 폭력 관련 데이터의 경험적 분석은 “터키 출신 여성의 다수는 극단적 전통적인 및 폭력적인 파트너관계에서 살고 있지도 않고, 독일 출신 여성의 다수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동등한 역할분담의 근대적 파트너관계에서 살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주여성들이 고강도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그녀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능력 부족, 교육 결핍과 같은 그들의 사회적 상황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소들을 도외시 하고 폭력과 양성평등 문제를 일방적으로 ‘이슬람’ 문화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폭력의 ‘문화화’는 독일 다수사회에서의 가정폭력과 양성평등 결손의 문제를 비가시화 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적 차이를 종교적 차이로 치환하는 이슬람비판가들의 ‘문화화’ 논지는 정치적 차이를 종교적 차이로 설명하는 급진적 이슬람주의자의 논지를 닮아 있다.

[주제어] 이슬람문화, 문화화, 무슬림 이주여성, 가정폭력

---

\* 최대회(E-mail: ppiraten@naver.com)  
 현직: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교수  
 학위취득대학: University of Freiburg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4225)

논문접수일 : 2015년 3월 31일, 논문수정일 : 2015년 4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5년 5월 11일

## Discussion on Violence against German Muslim Migrant Women

Choi, Dae-hee

### <Abstract>

In recent discussions on violence against migrant women, the prevailing discourse focused on the axis of “the West vs. Islam,” “democracy vs. pre-democracy,” “human rights vs. violence.” This paper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such polarization and generalizations do not describe adequately the reality of women with migration background in German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ata on violence against migrant women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majority of women of Turkish origin do not live in traditional and extremely violent partner relationships.

Migrant women are exposed to violence not primarily because they are Muslims, rather because their social circumstances such as lack of language ability or education. If such social factors would be disregarded and the problem of violence and gender inequality would be attributed to only “Islamic” culture, then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and lack of gender inequality in German majority society could be made invisible. This “culturalization” arguments replacing the social difference by the religious one closely resemble the arguments of the Muslim-fundamentalists explaining the political difference by the religious one.

[ **Keywords** ] Islamic culture, culturalization, muslim migrant women, domestic violence

## I. 들어가며

독일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강제결혼, 가족 내 통제 및 폭력이란 주제가 논의되면서 언젠가부터 터키 이주자에 대한 천편일률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러한 이미지는 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다수사회의 일부정치가와 미디어를 통해 널리 확산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키 출신 이주여성 중 다수는 강제결혼 했으며 혼인을 목적으로 터키로부터 수입되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집밖의 여가활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게다가 토착 독일여성과 비교하여 남성 파트너에 의한 일방적 지배와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Schröttle 2006, 27).

터키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토착 독일여성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 중 2/3이상은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했거나 아니면 20년 이상 이미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파트너를 스스로 선택했다(BMFSFJ 2004, 130). 또한 토착 독일여성과의 비교도 터키 이주여성에 대한 이러한 식의 천편일률적 평가는 더 이상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터키출신 여성의 다수는 극단적으로 전통적, 폭력적인 파트너관계에 살지도 않고 독일출신 여성이라고 해서 다수가 과제를 동등하게 분담하는 파트너관계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토착 독일 가족에서도 식사 준비, 빨래하기, 청소

하기 등과 같은 핵심 가사활동은 압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파트너 사이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평가와 이와 동시에 파트너관계에서 통제와 지배에 대한 평가는 독일 출신 여성의 파트너관계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전통적 역할 및 과제 분담을 통해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행동전범을 통해 규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이주자에 대한 가정폭력 논의는 극대화 되고 감정이 실린 채 수행된다. 한편에서는 여성 폭력의 문제를 스캔들화 하고 싸잡아 비난하는 식이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문제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별 해가 없는 식으로 취급한다. 다수사회의 미디어와 일부정치는 터키 출신 이주자에 대한 편견을 전이하여 억압적 이주정책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이 문제를 도구화했다. 그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독일 다수사회의 가정 폭력과 양성평등 문제는 비가시화 되고 은폐되었다. 평소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해소와 양성평등 정책에 그렇게 진지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던 정치세력들이 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논쟁은 명예살인과 같은 폭력범죄가 알려지거나 ‘외국인’ 청소년이 참여한 범죄적 습격사건이 보고될 때 보다 격렬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슬람비평가들에게 ‘이슬람’의 폭력적 특성과 그것의 여성억압적인 일반적 경향을 지적하는 새로운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주자사회에서 여성의 삶의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침체화되어 있던 터였다. 토착독일인과 이주자집단의

공존의 문제, 기독교적 다수문화와 이슬람적 소수문화 사이의 이른바 문화갈등 문제 그리고 독일 대도시 이주자 거주구역에서 평행사회 발전을 둘러싼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사회와 정치가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이었다. 2001년 9월 11일 이래 발생한 이슬람근본주의 경향의 테러는 이런 주제들에 또 다른 날카로움을 부여했고 유럽사회가 잠재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을 일깨우는데 기여했다. 그러는 사이 언론 및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이러한 주제 영역들이 마치 독일 사회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핵심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졌다. 켈렉(Necla Kelek)과 아테취(Seyran Ateş)와 같은 반이슬람주의자들의 인기영합적 수사학이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동일한 현상이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및 스웨덴과 같은 이웃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Klausen 2006, 15). 이 나라들에서는 대중영합적인 우파 정당이 반이슬람 의제를 갖고 상당한 성공을 거둔 바 있었다. 명예살인 사건이 독일사회에 던진 과장은 바로 이와 같은 전 유럽 차원의 반이슬람 정서 확산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살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반이슬람 정서의 확산이라는 배경 하에서 명예살인과 같은 가족 내 폭력 현상은 엄청난 여론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sup>1)</sup>

1) 독일 미디어에서 명예살인이 어느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받았는가는 독일어로 발간되는 전국 차원의 신문에서 '명예살인'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는 기사의 수가 2003년에는 20건도 되지 않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450건을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berwittler, Dietrich und Kasselt, Julia, 2011, pp. 3-4.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독일 여론에서 명예살인과 가족 내 폭력은 통상 이주자의 근대화 의지 결핍 및 통합 결핍에 대한 증거로서 인식되었다. 이때 타자의 범죄는 언제나 자기집단의 범죄보다 더 눈에 띄고 더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낯은 사회심리기제가 작동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제는 인과적으로 타자 집단과의 '문화의 차이'를 갖고 설명되었다. 예를 들면 터키 이주자가족에서 파트너 살해는 문화적 후진성 또는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폭력친화성의 결과로서 해석되는 반면, 독일 가족에서의 파트너 살해는 독일 다수사회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연관되어 설명되지 않았다. 이른바 '명예살인'이 독일사회에서 보다 큰 주의를 끈 것은 그것이 독일 다수사회와 이주자의 출신문화 사이의 '문화의 차이'의 상징으로서 기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문화의 차이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서구 대 이슬람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담론적 '할당' 작업이 수행된다. 근대적/해방적/무폭력적인 것은 독일적/서구적/기독교적인 서양과 등치되고, 이에 반해 전통적/후진적/폭력적인 것은 터키적이며 이슬람적이라는 식의 일괄적 할당이 진행된다(Schröttle 2006, 26).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방적 분극화는 허용될 수 없으며 독일에 거주하는 토착 독일여성과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의 현실에 적합한 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독일 빌레펠트대학 팀이 독일 거주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성 폭력에 대한 표본조사<sup>2)</sup>로부터 나온

2) 이 연구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독일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표본조사로서,

경험적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주여성을 둘러싼 폭력 논의에서 그들의 경험적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객관적이고 차별적인 관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때 본 연구는 파트너관계에서 폭력, 가족관계에서의 고립, 통제 및 지배라는 문제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문제영역이 터키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할당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영역은 터키 출신 이주자의 다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독일 다수사회와 다른 이주자집단의 적지 않은 부분에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객관적’ 공간을 토대로 본 연구는 독일 공공여론에서 이슬람비판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켈렉과 아테취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반이슬람 담론과 그것에 내재된 폭력의 ‘문화화’ 기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슬람비판가들은 무슬림의 범죄 및 폭력 현상의 모든 책임을 이슬람 또는 신법으로서의 샤리아에게 떠넘기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슬람과 무슬림의 폭력성 사이의 연관을 따지고, 그런 다음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논의에서 ‘문화의 차이’가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오히려 폭력 현상의 사회적 요인들이 은폐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 II. 무슬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독일 거주 여성의 사회적 상황을 요약하면, 터키 출신 이주여성의 상당 비율은

독일 태생 여성과 구소련 출신 이주여성 과 비교하여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소득이 낮고,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터키 출신 여성의 엄청난 비율(41%)이 구소련 이주여성(27%)과 토착 독일여성(22%)과 비교하여 무소득자라는 사실은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종속을 시사한다. 터키 이주배경 여성들의 이와 같은 열악한 삶의 조건은 파트너의 통제와 지배에 종속되어 있는 여성이라는, 독일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편견을 확정 짓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이다. 이러한 모습은 터키 이주여성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략 70%는 학교졸업장을 갖고 있고, 1/7은 고등교육을 받았다. 이 비율은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계의 다수는 국가지원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협소한 주거공간에 살고 있지 않다. 터키 이주배경 여성의 40%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중 1/3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좋지 못한 교육을 받고 어려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터키 이주여성에 대한 천편일률적 이미지는 일정 부분에만 적용될 뿐이다. 동시에 토착 독일여성의 취업과 소득상황에서의 결핍이 눈에 띈다. 여성의 1/3이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으며, 1/5 정도가 무소득이거나 300유로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Schröttle 2006, 15-17). 여태 터키 출신 이주여성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해방 및 평등이 요구되었다면, 경험적 데이터는 독일여성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가 제기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이주맥락과 연관된, 터키 구소련권 이주여성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BMFSFJ 2008.

## 1. 파트너관계에서의 폭력 양상

토착 독일여성과 비교하여 터키 이주 배경을 가진 여성들에게서 보다 빈번한 폭력 노출이 확인된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파트너관계에서 통제 및 지배는 독일 거주 이주자의 배타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토착 독일여성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파트너관계를 맺었던 혹은 맺고 있는 60세 이하 여성 10명 중 3-4명 정도의 여성이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및 성적 침해를 파트너로부터 적어도 한번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때 터키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의 비율(37%)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다.

<표 1> 현재 및/혹은 과거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및/혹은 성적 폭력

	독일출신	터키출신	구소련
현재 및 과거 파트너에 의한 신체 및 성적 침해(16-59세)	29%	37%	28%
35세 이하	31%	39%	29%

(출처: Schröttle 2006, 20)

물론 현재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에 초점을 맞출 경우 조사 집단 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터키 출신 이주자는 토착 독일여성에 비해 현재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에 두 배나 더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터키 이주배경 여성은 별거나 이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이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 폭력위협 및 추적의 희생자가 될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별거 및 이혼 상태에 있는 터키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의 33%가 과거 파트

너에 의한 폭력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율은 구소련 출신 여성(15%), 토착 독일여성(10%)에 비해 매우 높다(BMFSFJ 2008, 190). 물론 이 수치는 터키 출신 여성의 2/3는 그러한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폭력적인 파트너관계로부터의 분리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은 이주와 맞물려 있는 열악한 사회적 조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표 2> 현재 파트너에 의한 심리적, 육체적 및 성적 폭력에 피해를 당한 자에 대한 전체 조망

	독일출신	터키	구소련
해당 사항 없음	67.8%	42.7%	57.5%
심리적 폭력, 육체적/성폭력 없다	18.1%	26.9%	26.7%
단지 가벼운 / 드문 폭력	7.6%	10.6%	7.9%
중, 고강도 또는 빈번한 육체 폭력(성폭력은 없다)	4.6%	11.5%	4.8%
성폭력(빈번히 다른 형태의 폭력과 조합 이룬다)	0.9%	5.3%	2.7%
응답 없음	0.9%	3.1%	0.3%
총합	100%	100%	100%

(출처: Schröttle 2007, 153)

그 어떤 형태로든 성적, 신체적, 심리적 폭력에 피해를 당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은 토착 독일여성(68%)에게서 제일 높다. 터키 출신 여성(43%)에게 제일 낮다. 심리적 폭력과 보다 가벼운 형태의 폭력은 모든 조사 집단이 다소간 경험하고 있고 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보다 고강도의 빈번한 육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의 형식들에서 터키 이주배경 여성의 특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터키 이주여성은 다른 집단보다 2-3배(17%,

다른 두 집단에서는 6%, 8%) 빈번하게 그러한 폭력을 경험했다. 물론 다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터키 이주배경 여성 6명 중 한 명이 보다 진지한 육체적 및/또는 성적 폭력의 형식들을 체험한다는 사실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편으로는 파트너 관계에서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 위험이 터키 출신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독일 다수여성에게서도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물론 이와 동시에 터키 이주배경 여성이 폭력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 폭력이 결코 터키 출신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낙인찍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 중 대다수는 그러한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정도가 아주 미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파트너관계에서 통제, 지배 관계 및 심리적 폭력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터키 출신 남성 이미지는 그들이 도착 독일남성보다 파트너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 지배 및 심리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트너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구소련 33%, 독일 19%)과 비교하여 터키 출신 여성(44%)에게서 가장 높게 나왔다. 파트너에 의한 지배 진술에서도 터키 이주 여성(29%)이 독일여성(14%) 및 구소련 여성(21%)에 비해 명백히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파트너관계에서의 남성 지배적 태도가 터

키이주배경 여성에게 특히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문제가 배타적으로 이 집단에만 한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독일 출신 여성의 1/7 역시 남성 지배적 파트너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그런 반면 터키 이주배경 여성의 다수(71%)는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Schröttle 2006, 21-23).

<표 3> 현재파트너에 의해 통제-지배-위협을 당한 전체 개관

	독일출신	터키출신	구소련
나의 파트너는			
시기심이 많고 다른 여성/남성과의 접촉을 금지한다.	7%	27%	15%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언제 돌아오는지 통제	7%	21%	17%
내가 무엇을 위해 얼마의 돈을 지불하는지 정확히 통제	6%	16%	15%
나와 관계되는 결정을 혼자서 결정	8%	18%	13%
나에 대한 신체적 공격 / 훼손을 진지하게 위협한다.	1%	5%	3%
나를 죽이겠다고 진지하게 위협한다.	0.4%	4%	1%
총합계	20%	44%	34%

(출처: Schröttle 2006, 22)

심리적 폭력, 위협, 통제 및 지배의 맥락과 연관된 진술을 요약하면, 터키 출신 여성(44%)이 독일여성(20%)보다 두 배 이상이나 더 많이 파트너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보고한다. 구소련 출신 여성들 역시 높은 수치(34%)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과 관련하여 이주자집단의 사회적 및 문화적 요소들의 영향, 이주와 배제의 맥락에 있는 문제들의 영향

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이 데이터는 현상들이 압도적으로 특정 문화권, 다시 말해 이슬람 문화권에 귀속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거꾸로 그러한 태도들이 서구기독교적-서양 문화의 한 구성부분이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토착 독일여성들의 1/5도 그런 태도들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주 여성의 다수 역시 현재의 파트너에 의한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화시키고 싸잡아 묶어서 말하는 식의 할당은 금지되어야 한다.

독일여성이주자의 사회적 교류와 관련해서도 여론이 시사하는 것과는 다른 보다 세분화된 이미지가 드러났다. 우선 터키 출신 이주여성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터키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의 압도적인 부분은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 연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외부에서 믿을만한 대화상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매우 자주 가족 또는 지인과 왕래를 했으며 상당한 비율(28%)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가족 범위 밖의 사람들과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터키 출신 설문대상자 중 가족 밖의 사회적 관계와 결합의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낸 비율은 20-40% 정도에 이른다. 이 여성들은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으며 친한 친구가 적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은 집밖의 사회적 여가활동을 전혀 혹은 거의 하지 않았다. 가족 및 파트너 문제에서 신뢰가 가는 대화상대를 갖고 있지 못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안

정감, 따뜻함 및 정겨움의 결핍을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는 억압적 및 통제적 가족 및 파트너관계라는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독일 다수사회에 의한 절연, 차별화 및 고립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다. 어떻든 이러한 문제가 구소련 출신 여성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정도로 해당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주와 연관된 사회적 조건이지 배타적으로 종교적 및 문화적 배경과 연관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자기고립, 차별경험, 파트너에 의한 통제, 언어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 각각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연구는 이주 배경을 가진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사회적 결합과 고립의 정도에서 차이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차별 및 배제구조를 통해서도 함께 결정되지, 압도적으로 종교적 혹은 인종적 차이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리키는 또 다른 증거이다 (BMFSFJ 2008, 158-159).

### 3. 후진적 파트너관계의 일방적 할당

여성에 대한 폭력, 지배 및 억압 논의에서 드러나는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근대적 대 전통적 양성관계라는 축을 중심으로 추정상 근대적인 다수사회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방식으로 후자에게 할당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다수사회의 양성관계는 실제보다 훨씬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평등요구가 추정상 후진적인 인종적 소수자에게 일방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토착 독일여성의 파트너관계 역시 여러 형태로 전통적 역할 및 과제분담에 의해 각인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토착 독일여성의 경우도 압도적으로 식사 준비, 세탁하기, 청소 등과 같은 핵심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이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보다 직업을 가진 경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표 4> 가사분담

	독일출신	터키출신	구소련
식사준비	73%	88%	73%
빨래하기	88%	90%	89%
식사 후 설거지와 정리	53%	79%	59%
청소	73%	86%	70%
아이 돌보기	43%	63%	39%
장보기	52%	46%	23%

(출처: BMFSFJ 2008, 161)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분담 평등성에 대한 비교연구는 두 국가 사이의 차이가 독일에 살고 있는 토착 독일여성보다 터키출신 여성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랑스 여성은 독일여성에게 비해 가사 혹은 아이 돌봄을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드물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의 차이가 - 아이 돌봄을 제외하고 - 거의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 출신 젊은 여성은 47%정도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데, 이 수치는 이를테면 독일에 살고 있는 토착 독일여성의 그것과 거의 같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에게 전근대적 또는 전통적 파트너관계를 선불리 할당하는 것을 상대화시킨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평등한 역할분담과 관련하

여 토착 독일 및 터키 출신 여성 사이에서의 차이보다 토착 독일 및 토착 프랑스 여성 사이에서 차이점들이 더 크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나아가 토착 독일여성의 상당한 부분 역시 통제, 지배 그리고 심리적/육체적/성적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결코 터키 출신 여성에게 환원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BMFSFJ 2008, 162 표5참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터키 출신 여성이 토착 독일여성보다 고강도의 빈번한 폭력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과장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도구화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고강도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그녀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상황, 언어능력 부족, 교육 결핍이 그들을 고립상태와 파트너에 대한 경제적 종속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폭력연구로부터 사회적 고립과 혼인파트너에 대한 종속성은 폭력행사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여성이 자립적이면 자립적일수록, 대안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폭력행사의 개연성이 낮아진다. 게다가 가정폭력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이다 (Rommelspacher 2007, 248). 이러한 사회적 요소들을 도외시 하고 폭력을 '이슬람' 문화로 할당하는 방식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반대편의 기독교적 가족을 폭력으로부터 면제시키고 양성평등 결핍과 가족 내 폭력 문제를 '문화화' 하는 결과를 낳는다.

### III. 반이슬람 담론에서 폭력의 '문화화'

#### 1. 이슬람비판가 켈렉과 아테취

현재 독일 사회에서의 이슬람의 역할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슬람을 둘러싼 논쟁은 독일 이주자사회의 통합 논의와 뒤섞이기 시작했다. 독일사회에서 이슬람이 통합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 혹은 독일사회가 이슬람에 대해 어느 정도로 문을 열어야 하는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논쟁에서 켈렉과 아테취 같은 무슬림 출신 이슬람비판가들이 이름을 날리고 있다. 켈렉은 무슬림 이주자들의 '통합준비성의 부족' 혹은 '통합의지박약'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이슬람' 종교에서 찾는다. 그녀에 따르면, '종교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무슬림의 전통과 생활방식'이 통합문제의 핵심원인이고, 신앙심 깊은 무슬림은 아예 통합이 불가능하다(Kelek 2007, 54). 그녀의 이러한 입장은 이슬람과 민주사회의 합치성에 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나온다. 켈렉은 개인에게 자기결정권을 거부하는 문화가 민주주의 능력이 있는가?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는 문화가 사회를 지탱할 능력이 있는가라고 반복적으로 묻는다(Kelek 2006c, 223). 아테취도 비슷하게 언급한다.

“이슬람에는 (...) 개인과 그의 의지는 가치가 없다. 공동체만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절대적 집단주의는 이미 인권침해로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개성의 발달이라는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강제결

혼 및 명예살인은 그것에 내포된 논리적 결과이다(Ateş 2007, 203).”

그녀의 논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주자들의 사회적 문제가 점차 그들의 인종적 출신 및 종교로 환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논지는 명예살인, 강제결혼, 가정폭력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회적 문제들이 주로 터키 및 아랍인들에게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슬람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공간에 돌아다니는 편견을 뒷받침해 준다.

아테취는 이와 동시에 이른바 다문화주의자들을 잘못 이해된 관용으로부터 폭력과 여성억압을 비록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감수한다고 비난한다. 그들의 무책임이 현재의 비참함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켈렉은 이슬람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멀티컬티 광신도(Multikultifanatiker)'라는 경멸적 이름을 붙인다. 그들은 터키 가족들에게서 폭력적 관계들을 봐도 그것을 비난하는 대신 옹호한다고 꾸짖는다. 아테취도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해 반대한다. “폭력이 문화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나는 상상할 수 없다(Kelek 2007, 107).”

그녀들의 논지는 이슬람=여성억압이라는 등식에 기초해 있다. 이제 그녀들이 일차적 관심사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 아니다. 거꾸로 무슬림 이주여성들의 문화와 종교를 평가절하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럼으로써 여성권리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타자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적 방식으로 논쟁이 극단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택일적 문제제기 자체가 문제이다. 이슬람은 그들

이 상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일한 종교도 아닐뿐더러, 이슬람과 여성폭력을 연동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비판가들의 전제들을 보다 정확히 해명하고 실제로 어떤 설명 모형이 해당 논지의 바탕에 깔려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2. 이슬람과 폭력성

우선 반이슬람주의자들이 이해하는 이슬람이 어떤 것인가가 문제이다. 켈렉은 언제나 ‘이슬람’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슬람 내부의 차이점들에 주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슬람의 사고모형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슬람 내부에서의 차별화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Kelek 2006a, 184). 그러나 실제로는 이슬람에는 서로 다른 여러 분파들이 존재하고 있고, 독일 거주 무슬림에는 이를테면 정통파적, 근본주의적 경향의, 급진적 또는 세속적 방향과 같은 서로 다른 포지션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이슬람적 논지에 따르면 ‘이슬람’ 내부에는 민족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문맥에 따른 모순이나 서로 다른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 켈렉에게는 60-70년대 독일로 이주해 온 터키 농촌 출신 노동이주자들이 무슬림의 전형이다. 독일 거주 무슬림 이주자의 다수가 터키 농촌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슬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는 다른 국가 출신 또는 터키의 도시 지역 출신 무슬림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sup>3)</sup> 무엇보다 그들의

3) 독일연방 이주와 난민청(Bundesamt für

후손인 이주 2, 3세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슬람이 이주 1세대인 ‘고전적’ 손님노동자(Gastarbeiter)의 이슬람과 같은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 의문제기가 필요하다(Rommelspacher 2009, 448).

이슬람비판가들의 논지에서 사회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은 ‘이슬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신법 ‘샤리아’이다. “이슬람과 샤리아, 즉 이슬람 법체계를 민주주의, 인권, 양심의 자유, 다원주의 그리고 핵심사안인 양성평등과 일치시킬 수 있는가?”라고 저명한 언론인이 수사학적 질문을 던진 바 있다(Şeker 2011, 17). 여기서 ‘샤리아’는 무슬림의 모든 형태의 탈선적 행동들을 환원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질서로 이해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샤리아는 ‘중세’ 또는 ‘전근대’ 발전단계에 멈춰선 규범체계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양성평등과 합치할 수 없다. 켈렉 역시 샤리아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 무슬림의 폭력범죄, 억압과 모든 정치적, 사회적 행동의 설명을 위해 끌어들인다. 그녀에 따르면, 무슬림 공동체는 ‘하나님의 궁극적 의지’인 ‘계율과 금지’에 종속된 ‘집단’에 불과하다(Kelek 2007, 53-59). 그렇기 때문에 터키 및 아랍 출신 이주자들은 민주주의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

Migration und Flüchtlinge)이 발표한 “독일에서 무슬림의 생활(*Muslimisches Leben in Deutschland*, 2009)”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독일 거주 무슬림 수는 380만 명에서 40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전 독일인구의 4.6%-5.2%에 해당한다. 독일 무슬림 가운데 45% 독일국적 보유하고 있고, 63.2%는 터키 출신이고, 그 다음은 보스니아 등 동유럽 지역 출신 (13.6%)이고, 그 외 아랍,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 스스로가 법제정자이고, 코란에 작성된 계시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세속적’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Kelek 2006b, 30).” 요컨대 켈렉 역시 신이 선물한 법이자 인간이 수정할 수 없는 법률로서 ‘샤리아’를 이해한다. 그러나 법률가이자 이슬람학자인 로에(Mathias Rohe)는 이와 같은 식의 샤리아와 이슬람 법과의 등치는 의미협소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샤리아는 코란과 예언자전통(Hadithe)을 통해 공개된 계시와 금기의 전체를 가리킬 뿐이다(Rohe 2009, 16).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샤리아는 이 계시의 세속적 집행자에 초점을 맞춘 법전이 아니다. 따라서 이슬람법은 신법이 아니라, 종교적 원천으로부터 도출된, 인간이 만든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능하다.

‘이슬람’ 및 ‘통합’을 둘러싼 다수사회 담론의 토대에는 ‘문화’에 대한 정적인 이해가 놓여 있다. 이 문화 개념을 바탕으로 이슬람 (또는 터키) 문화와 기독교 (또는 독일) 문화 사이에 선명한 경계가 설정되고, 그럼으로써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가 정당화된다(Sökefeld 2004, 25). 이제 이슬람은 마치 코르셋과 같이 인간의 삶을 옥죄는 문화로 이해된다. 이슬람 문화는 시간과 장소와는 독립적으로 전 무슬림 이주자들에게 타당성을 가지며 ‘서구’ 문화의 규범과 가치와는 수직적으로 대치되는 샤리아, 즉 신법을 추종한다고 상정된다. 이러한 문화적으로 이해된 이분법에 따르면, 무슬림은 ‘시스템 이슬람’의 문화적 마리오네트로서 행동한다. 명예살인 범죄자는 바로 이런 이슬람의 문화적 마리오네트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그런데 명예살인은 실제로 어떻게 성립하는가? 비이슬람적 삶을 살기 때문에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는가? 명예 개념은 지중해 공간의 농촌지역 전체에서 여러 변형태의 모습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명예는 마피아 및 카모라 권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유독 독일 여론에서 명예살인이 더욱 문제시 된다. 그것은 명예살인이라는 범죄의 스펙타클한 형태가 인종적-문화적 소수자에 대해 다수사회의 타자지각을 표현하기에 특별히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른바 서구와 이슬람 사이의 ‘문화의 차이’를 토대로 명예살인 사건은 미디어와 정치가에 의해 소수자 사회가 이른바 ‘평행사회’를 구축해 다수사회의 가치와는 답을 쌓은 채 그들만의 가치를 추종하고 그들만의 사법성을 실현한 소수자의 ‘문화’의 사건으로 평가되기에 이른다(최대회 2015, 113).

그러나 이주 맥락에서 명예개념은 새롭게 협상된다. “가치를 변형하는 및 가치를 안정화하는 과정들이 서로 당기고 밀치는 복합적인 과정”이 진행된다(Schiffauer 2008, 44). 이것은 결국 ‘명예’라는 동기가 모든 개별적 ‘명예살인’ 사건에서 상이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따라서 명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낳는다. 명예가 개인적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최대회 2015, 118-125).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명예살인’은 고유한 판결권을 행사하는 평행사회적 ‘이슬람’ 법체계로부터 도출되는 형벌이 아니다. ‘명예살인 범죄자’는 이슬람에서 규범적 심급으로서 샤리아를 끌어들이

수가 없다.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명예살인은 물론 생식기훼손 및 가정 폭력은 이슬람에 기초하여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Rohe 2009, 69).

최근에 이슬람 종교성과 폭력성 사이의 맥락을 연구한 결과들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이슬람과 폭력성 사이에 인과성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Landeskommission 2007, 53). 오히려 어릴 때의 범죄적 환경 및 폭력 체험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이주환경에서의 청소년 폭력성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주자가족 출신 청소년들이 독일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들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론은 그러한 사실에 반대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증가하는 폭력은 오히려 독일 환경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출신국에서 성립한다고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Landeskommission 2007, 120). 또한 무슬림의 압도적인 다수는 폭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연방내무성의 위탁을 받아 독일 전국차원에서 수행된 “독일의 무슬림”이란 표본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인 무슬림의 90% 이상이 폭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무슬림의 3/4은 이슬람을 서구 사회질서와 합치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근본주의적 입장의 무슬림조차도 반드시 급진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10-12%의 무슬림이 급진화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들 중에서도 단지 6%만이 폭력적인 전복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참고로 독일 극우주의에서 발견되는 급진주의자(18%)보다 훨씬 적다. 이런 맥락에서 이슬람 종교가 무슬림의 정치적 급진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MI 2007, 173-179).

### 3. 반이슬람 논지에 내포된 폭력의 ‘문화화’

독일 여론에서는 무슬림이 관련된 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코란 경전에서 적절한 구절들을 찾아내어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이슬람에게 떠넘긴다. 그렇다면 문화, 보다 정확히는 종교에게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그렇다면 기독교 가족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기독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켈렉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는 이슬람과의 다르게 ‘사랑의 종교’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코란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피와 폭력의 이야기들만” 들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신약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이다(Kelek 2006a, 193). 그녀는 기독교는 이상화하는 반면, 이슬람교 내의 평화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흐름을 무시한다. 그녀의 반이슬람 논지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이른바 폭력의 ‘문화화’ 기제이다.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쇤후트(Michael Schönhuth)는 자신의 ‘문화정글을 관통하는 편람’에서 ‘문화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문화화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정체성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문화’ 및 ‘문화적 논지’의 준거들을 도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Schönhuth 2005, 117).”

이슬람 이주여성을 둘러싼 폭력 논의에서 이와 같은 ‘문화화’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문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에 이주여성 폭력 책임 떠넘기

기, 이른바 폭력의 ‘문화화’가 진행된다. ‘문화화’는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여타 사회적 요소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다수 사회와 소수자를 양극화시켜 소수자를 폭력 문제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한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이와 더불어 평화적/서구적/기독교적 대 폭력적/후진적/이슬람적이라는 이분법적 경계 설정이 구축된다. 그리하여 무슬림의 폭력적 태도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환원되는 반면, 기독교적 문맥에서 발생한 유사한 현상은 - 문화적 요소를 끌어들이지 않고 - 사회적 요인으로 환원된다. 이에 대한 실례를 아데취의 진술이 보여준다.

“이슬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허용된다. 물론 시기심 많은 남편에 의해 비슷한 괴롭힘을 당하는 토착 독일여성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범문화적으로 알고 있는 인습적 시기심이 종교적 토대를 가진, 내면화된 문화적, 전통적 행동모형과 결합되어 있다. 결과는 억제될 수 없는 폭력잠재성이다. 이성적 논지는 이런 남성들에게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Ateş 2007, 112).”

그녀에 따르면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무슬림의 폭력과는 달리 독일남성들에게는 범문화적인 시기심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적 요소들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마치 ‘서구’ 문화는 폭력을 장려하는 측면이 전혀 없다는 식이다.

특히 가족 내 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사안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너무 성급하게 ‘문화’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비판자들은 무슬림이 왜 폭력적이 되는가에 대한

세심한 분석 노력은 포기한 채,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한다. 아데취는 이혼, 가족 내 폭력 및 학대 전문 변호사이다. 켈렉의 진술은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들의 진술은 폭력의 문제성이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 말하자면 극단적 경우들이 일반화 되고 이러한 것들의 책임을 다시금 문화 또는 종교에게 뒤집어씌우는 형국이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사회적 요소들이 평가절하 되거나 무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사회와 소수의 생활방식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폭력의 ‘문화화’ 경향은 비단 대중여론에서뿐만 아니라 진지한 학술연구서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극우파에 대한 연구는 오로지 독일청소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다. 이주청소년들이 무슬림으로 간주되는 만큼, 그들의 급진화는 오로지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파악된다. 앞에서 언급된 “독일의 무슬림”이라는 거대 조사도 좋은 예시이다. 이 조사에서 무슬림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질문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들의 종교적 입장만 질문이 되고 연이어 민주주의를 승인하느냐 그리고 통합에 대한 의향을 갖추고 있느냐만 질문된다. 무슬림은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만 파악되고 통합되어야 할 소수자로서만 간주된다. 독일 거주 무슬림의 종교와의 연계성이 극단주의 및 폭력성의 발전과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인 만큼(BMI 2007, 9), 이러한 접근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문제는 독일 거주 무

슬람이 일차적으로 신자로서 인지되고 정치적 시민으로서 인지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종교성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문제로서, 즉 정치적 문제로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슬람과 서구를 이와 같은 식으로 일방적으로 대립시킴으로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종교적 차이 혹은 정치적 차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가 불분명하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는 경제 및 군사적 권력의 중심부에 대한 공격이었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으로 이슬람과 서구가 대립적으로 설정됨으로써 정치적 맥락도 함께 소환된다. 이때 정치적 문제는 문화적인 또는 종교적인 문제로 정의된다. 이슬람과 서구를 수직적으로 대립시키는 구도에서 작동하는 문화화는 정치적 차이를 문화적 차이로 설명하는 급진 이슬람의 논지와 매우 닮아 있다.

그와 같은 과도한 ‘문화의 차이’에 대한 강조는 아주 심각한 실천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극우파 연구의 예시로 돌아가면, 극우파 독일 청소년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일차적으로 심리적으로 설명된다. 아니면 청소년들이 가족관계의 어려움 및 직업전망의 불투명을 근거로 방향성 상실과 탈통합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무슬림 청소년들의 정치적 급진화는 이슬람에게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증오설교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그리하여 극우파 독일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 상담과 교육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장려되는 반면, 무슬림 청소년들의 급진화와 관련해서는 이슬람

에 대한 투쟁 혹은 문제 청소년들의 독일 밖 추방이 장려된다. ‘문화의 차이’를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다수사회는 자기를 보편적인 것으로서 내세운다. 타자는 이러한 보편적인 것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타자는 규범, 규범성으로부터의 이탈로서 구성되는데, 그러한 것은 이러한 규범성에 적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축하고 있다 (Rommelspacher 2009, 469).

## IV. 나가며

독일 다수사회 여론에서 이슬람 문화는 독일 주류문화와는 대비되는 것으로서 구 대 이슬람, 계몽 대 후진, 민주주의 대 전민주주의, 근대 대 전근대, 세속 대 이슬람, 인권 대 폭력으로 이분법적으로 파악되곤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자민족중심의 문화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위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독일사회에서 이슬람 문화는 근대화 되고 진보된 민주국가를 후진하게 하는 또는 해가 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극화에 기초한 이와 같은 인식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독일 이주여성 폭력 관련 데이터의 경험적 분석은 “터키 출신 여성의 다수는 극단적 전통적인 및 폭력 잠재적인 파트너관계에서 살고 있지도 않고 독일 출신 여성의 다수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동등한 역할분담의 근대적 파트너관계에서 살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Schröttle 2006, 27).

물론 터키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고강도의 빈번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녀들이 고강도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그녀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능력 부족, 교육 결핍과 같은 그들의 사회적 상황이 그들을 고립과 파트너에 대한 종속으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소들을 도외시 하고 폭력과 평등 문제를 일방적으로 ‘이슬람’ 문화에게 그리고 무슬림 소수자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폭력의 ‘문화화’는 독일 다수사회에서의 가정폭력과 양성평등 결핍의 문제를 비가시화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공공여론에서는 무슬림 여성에 대한 폭력 이미지만이 유포되어 돌아다닌다. 이른바 ‘이슬람’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사건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로부터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종교로서 이슬람 이해가 고착된다. 이제 이슬람과 폭력에 대한 이미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동된다. 독일 맥락에서 명예살인, 강제결혼,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지적은 이슬람의 폭력잠재성, 신법으로서의 샤리아 등과 같은 개념에 뒤섞여 들어간다. 그러나 이슬람과 폭력성 사이에 인과성은 증명되지 않는다.

켈렉과 아테취와 같은 이슬람비평가들은 서구와 이슬람을 대립시키고, 그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문화적, 종교적 문제로 정의한다. 그럼으로써 독일 거주 터키 소수자의 통합 문제는 아무런 검증 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적 차별과 자동으로 연결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 영역들은 터키 출신 이주자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으로 단순화되고, 그럼으로써 토착독일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설정된다.



## 참고문헌

최대회, 2015, “‘명예살인’과 독일 이주자 사회에서의 가치변형”, 『국제지역연구』 18권 5호, pp. 111-140.

## References

- Ateş, Seyran. 2007. *Der Multikulti-Irrtum. Wie wir in Deutschland besser zusammenleben können*. Berlin: Ullstein Verlag.
- BMFSFJ. 2004. *Lebenssituation, Sicherheit und Gesundheit von Frauen in Deutschland. Ergebnisse der repräsentativen Untersuchung zu Gewalt gegen Frauen in Deutschland*.
- BMFSFJ. 2008. *Gewalt gegen Frauen in Paarbeziehungen: Eine sekundär analytische Auswertung zur Differenzierung von Schweregraden, Mustern, Risikofaktoren und Unterstützung nach erlebter Gewalt*.
- BMF. 2009. *Muslimisches Leben in Deutschland*. Nürnberg.
- BMI. 2007. *Muslimen in Deutschland - Integration, Integrationsbarrieren, Religion sowie Einstellungen zu Demokratie, Rechtsstaat und politisch-religiös motivierter Gewalt*. Universität Hamburg.
- Kelek, Necla. 2006a. *Die fremde Braut. Ein Bericht aus dem Inneren des türkischen Lebens in Deutschland*. Köln: Kiepenheuer & Witsch.
- Kelek, Necla. 2006b. "Die muslimische Frau in der Moderne." *APuZ* No. 1-2.
- Kelek, Necla. 2006c. *Die verlorenen Söhne. Plädoyer für die Befreiung des türkisch-muslimischen Mannes*. Köln: Kiepenheuer & Witsch.
- Kelek, Necla. 2007. "Erziehungsauftrag und Integration. Eine Auseinandersetzung mit Integrationshemmnissen." *Deutsche Jugend* 55.
- Klausen, Jytte. 2006. *Europas muslimische Eliten. Wer sie sind und was sie wollen*. Ffm.
- Landeskommission Berlin gegen Gewalt. 2007. "Gewalt von Jungen, männlichen Jugendlichen und jungen Männern mit Migrationshintergrund in Berlin." *Berliner Forum Gewaltprävention* 28. Berlin.
- Oberwittler, Dietrich and Kasselt, Julia. 2011. "Ehrenmorde in Deutschland. Eine Analyse auf der Basis justiziell bearbeiteter Fälle der Jahre 1996 bis 2005." *Polizei+Forschung* 42. Köln: Wolters Kluwer Deutschland.
- Rohe, Mathias. 2009. *Das islamische Recht. Geschichte und Gegenwart*. München.
- Rommelspacher, Birgit. 2007. "Dominante Diskurse. Zur Popularität von 'Kultur' in der aktuellen Islam-Debatte." In *Orient- und Islambilder. Interdisziplinäre Beiträge zu Orientalismus und antimuslimischem Rassismus*, edited by Attia Iman, 245-266. Münster: Unrast.
- Rommelspacher, Birgit. 2009. "Islamkritik und antimuslimische Positionen – am Beispiel von Necla Kelek und

- Seyran Ates." In *Islamfeindlichkeit: Wenn die Grenzen der Kritik verschwimmen*, edited by T-G. Schneiders, 433-455. Wiesbaden: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Schiffauer, Werner. 2008. *Parallelgesellschaften. Wie viel Wertekonsens braucht unsere Gesellschaft?* Bielefeld.
- Schönhuth, Michael. 2005. *Glossar Kultur und Entwicklung Ein Vademecum durch den Kulturdschungel.* GTZ/DEZA, Universität Trier.
- Schröttle, Monika. 2006. "Gewalt gegen Migrant/innen und Nicht-Migrant/innen in Deutschland: Mythos und Realität kultureller Unterschiede." *Berliner Forum Gewaltprävention Häusliche Gewalt gegen Migrantinnen*, edited by Landeskommission Berlin gegen Gewalt, No. 25. Berlin.
- Schröttle, Monika. 2007. "Zwangsverheiratung, Gewalt und Paarbeziehungen von Frauen mit und ohne Migrationshintergrund in Deutschland - Differenzierung statt Polarisierung." *Zwangsverheiratung in Deutschland*, edited by BMFSFJ. Baden-Baden: Nomos Verl.-Ges.
- . 2009. "Gewalt gegen Frauen mit türkischem Migrationshintergrund in Deutschland: Diskurse zwischen Skandalisierung und Bagatellisierung." In *Islamfeindlichkeit: Wenn die Grenzen der Kritik verschwimmen*, edited by T-G. Schneiders, 283-301. Wiesbaden: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Şeker, Nimet. 2011. "Ist der Islam ein Integrationshindernis? - Essay." *APuZ* No. 13-14.
- Sökefeld, Martin. 2004. "Das Paradigma kultureller Differenz. Zur Forschung und Diskussion über Migranten aus der Türkei in Deutschland." In *Jenseits des Paradigmas kultureller Differenz: Neue Perspektiven auf Einwanderer aus der Türkei*, edited by Martin Sokefeld, 9-33. Bielefeld: Transcript.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Choi, Dae-hee. 2015. "'Honor Killing' and Acculturation among Immigrant Communities in Germany."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8 (5): 111-140.